

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10.19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- 교보생명, 수소차량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('26.10.16, 전자신문)
 - 교보생명은 연말까지 수도권 100여개 학교·돌봄기관 등을 찾아 초·중학생과 지역 주민 2만5000명에게 체험형 환경교육을 제공함
 - 학교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·지역 축제 등으로 교육 공간을 확대하고, 기후위기·탄소중립·친환경 소비를 다루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함
 - 초등학생 대상 AR·코딩봇 활용 교육과 중학생 대상 환경 진로·마을 개선 연계 수업 등 연령별 맞춤형 4주 집중 교육과정을 진행함
- 두산퓨얼셀, 美 수주 대응 운전자금 CB로…조정도 없는 전환가액 4만3천원, 그런데 주가는? ('26.10.16, 에너지경제신문)
 - 두산퓨얼셀은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연료전지 프로젝트 수주에 대응해 지난 13일 영구 전환사채 3000억 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 원의 발행을 결정함
 - 지난달 수주한 8236억 원 규모 계약의 대금 지급 조건은 선수금 20%, 중도금 75%, 잔금 5%이며, 원재료 확보부터 납품대금 회수까지 운전자금 부담이 발생함
 - 전환사채 발행액은 연료전지 사업 원재료 구매 등 운영자금에,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액은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임

○ 부산 스타트업 바젠, 고압수소 안전밸브 국산화 시동
(’26.10.16, 서울경제)

- 바젠은 수소 인프라용 고압 안전밸브 시제품 개발과 자체 초고압 시험환경 구축을 마쳤으며, 성능 검증과 인증 절차를 준비 중임
- 바젠은 10월 13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펀드에서 시드투자를 받았으나 투자금액은 공개되지 않음
- 국내 수소·산업설비 기업과 제품 적용을 협의하고 일본 기업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으나 확정 공급계약이나 상용화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

○ DGIST,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 기술 개발 (’26.10.16, 뉴시스)

- DGIST와 국민대 공동 연구팀은 물 기반 저전압 전기영동증착 공정으로 태양광 수소 생산용 광전극을 개발함
- 연구팀은 기존 약 200V였던 증착 공정 전압을 4V로 낮추고, 독성 유기용매 없이 수용액에서 3분 만에 전극 소재를 입힘
- 실험에서 광전류는 기존 단일 소재 전극보다 약 10배 높았으며, 2시간 연속 조사 뒤 초기 성능의 65.1%를 유지하고 수소 발생을 확인함

□ 해외

- [일본] 일본, 청정수소 CfD 지원예산 최대 50% 이미 배정 추정 ('26.10.16, Hydrogen Insight)
 - 일본 경제산업성(METI)은 총 3조엔(약 26.5조 원) 규모 청정수소 차액계약(CfD)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7개 사업에 지원금을 배정했으며, 전문가들은 전체 예산의 40~50%가 이미 배정된 것으로 추정함
 - 7개 사업의 청정수소 생산능력은 연간 16만3,296톤이며, METI는 15년간 생산비와 시장가격 간 차액을 보전하는 CfD 방식으로 지원함
 - PwC 컨설팅의 시계 오가와는 인도 ACME의 연간 22만8,000톤 규모 그린암모니아 일본 공급사업이 CfD 대상으로 선정된 점 등을 근거로 예산의 40~50% 배정 가능성을 제시함
 - Wood Mackenzie는 미국 CF Industries의 루이지애나 Blue Point 블루암모니아 사업 2건에만 15년간 약 68억 달러(약 9.4조 원)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하며, 전체 예산의 약 35%에 해당한다고 분석함
 - 해당 블루암모니아는 일본 기업 JERA·미쓰이가 일본 내 석탄화력발전소 2곳에서 혼소용으로 사용할 예정임
 - METI는 '25년 9월 이후 3개월마다 지원 대상 사업을 발표해왔으나, '26년 3분기에는 수혜사업을 발표하지 않아 비공식적인 분기별 발표 일정이 중단된 것으로 분석됨
 - 전문가들은 예산이 소진됐다는 의미는 아니며, METI가 총 27개 사업 신청을 접수한 만큼 향후 추가 지원 대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
 - METI는 CfD 사업이 이미 초과 신청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, 총 3조엔(약 27조원) 규모 예산이 모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

○ [노르웨이] 넬, 알칼라인 수전해 매출 급감으로 3분기 약 1천500만 달러 순손실 ('26.10.15, Hydrogen Insight)

- 노르웨이 넬의 2026년 3분기 순손실은 1억4100만 크로네(약 204억 원)였으며, 매출은 전년 동기 3억300만 크로네(약 439억 원)에서 1억1200만 크로네(약 162억 원)로 감소함
- 알칼라인 수전해 부문 매출은 91% 줄어 2300만 크로네(약 33억 원)에 그쳤으나 PEM 수전해 부문은 65% 늘어 8900만 크로네(약 129억 원)였고, 분기 신규 수주액 2억5300만 크로네(약 367억 원)의 97%가 PEM에서 발생함
- 넬은 9월 미국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잠수함 산소 생산용 PEM 장비 약 2000만 달러(약 276억 원)를 수주했고, 10월에는 미국의 미공개 고객사에서 2027년 납품분 약 1200만 달러(약 166억 원)를 추가 수주함
- 해뢰야의 기존 알칼라인 생산라인은 2025년 1월부터 가동을 멈춰 유희 고정비가 발생하고 있으며, 넬은 2025년 12월 신규 가압식 알칼라인 장비 연간 1GW 생산라인에 최종투자결정을 내림
- 넬은 정부 지원의 지연·취소, 높은 금리, 예상보다 큰 수소 설비 건설·운영비가 업계 수주 감소와 프로젝트 지연·취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함
- 3분기 말 현금 보유액은 약 10억8000만 크로네(약 1,566억 원)이며, 비용과 설비 가동률을 조정해 시장 회복까지 운영과 기술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힘

○ [일본] JERA, 미국 콜로마에 투자해 천연수소 탐사·개발
가능성 검토 ('26.10.15, Fuel Cells Works)

- 일본 발전기업 JERA는 기업형 벤처투자 조직 JERA벤처스를 통해 미국 천연수소 탐사·개발 기업 콜로마에 투자했으며, 이번 투자액은 공개하지 않음
- 콜로마는 미국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자체 지질자료와 탐사 도구, 현장 경험을 결합해 천연수소 유망 지역을 식별하고 자원을 평가함
- 콜로마가 지금까지 여러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4억 달러(약 5,520억원)를 넘지만, 이 금액은 이번 JERA 투자액과 구별됨
-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수소는 에너지 투입이 많은 제조 수소와 달리 직접 추출할 가능성이 있으나, 실제 저비용 공급은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한 자원이 확인돼야 실현될 수 있음
- 미국 지질조사국은 전 세계 지하 천연수소의 잠재량을 약 5조6000억톤으로 추정했으나,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회수 가능한 양은 그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
- 천연수소의 존재는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지만 상업 규모의 자원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, JERA는 콜로마 투자로 탐사 기술과 사업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계획임